

12

2010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크리스마스 메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12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창세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크리스마스 메시지

충현의 만나
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제입니다

12

2010
December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누가복음 16장
5 누가복음 20장	6 누가복음 21장	7 누가복음 22장	8 누가복음 23장
12 요한복음 3장	13 요한복음 4장	14 창세기 24장	15 창세기 25장
19 창세기 29장	20 창세기 30장	21 창세기 31장	22 창세기 32장
26 창세기 36장	27 창세기 37장	28 창세기 38장	29 창세기 39장

January

1	2	3	4	5	6	7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2 누가복음 17장

9 누가복음 24장

16 창세기 26장

23 창세기 33장

30 창세기 40장

금요일

3 누가복음 18장

10 요한복음 1장

17 창세기 27장

24 창세기 34장

31 창세기 41장

토요일

4 누가복음 19장

11 요한복음 2장

18 창세기 28장

25 창세기 35장

교회 주요일정

12월 17일

성탄축하 감사음악회

12월 19일

제직회

12월 25일

성탄절 감사예배

12월 26일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나의 주요일정

- 1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눅 2:14)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 2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전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독생자의 영광

“라” 씬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그 말씀, 삼위 하나님의 2위이신 영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진실로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성육신에 나타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2:11).

독생자의 영광은 곧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독생자를 따르십시오.
좁고 험할지라도 독생자가 걸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의 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2010년 12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 경 봉 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16장 · 찬송가 302장

도래하는 천국 구원을 분명히 알고 이에 대비하여 현재의 삶을 선용할 것을 강조하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흥청망청 써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해고하였고 그는 난처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힘과 지혜, 재물 등의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의해 스스로 획득한 것인양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청지기로서의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16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암시되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침입할 수 있습니다(16절 ; 마 11:12). 이는 만민에게 복음이 개방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실존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5)

기도제목

① 주인 행세를 하는 악한 청지기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1~10절).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죄를 씻음받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병환자 열 명의 치유 사건을 통해 참 구원을 얻을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병환자들은 모두 육의 고침을 받았 습니다. 그 중 아홉 명의 유대 출신 나병환자들은 주님을 떠나갔으나 이방인 인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 다. 그리하여 주님께로부터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입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육체적 차원에 서만 받아들여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방인 나병환자만이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때인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들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22~37절). 인자의 날, 즉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롯의 때와 같으며 그 날에는 뒤로 돌이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이며 현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까지 우리의 삶 역시 실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십자가를 붙잡고 롯의 처를 기억하며 뒤로 돌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눅 17:31~32)

기도제목

① 세상에 대한 헛된 미련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끈기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1~8절)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9~14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일(15~17절), 부자 관리에 대한 일(18~30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8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없음을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9절)로 표현하시며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의 모습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13절) 하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잊기 쉽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하던 부자 관리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26절)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길입니다. 그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눅 18:34)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집회(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공생애 사역을 바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아직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작고 부유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9절) 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추상적인 만남이나 막연한 허상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실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이 물러가며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앞서서(28절) 가십니다. 백성의 환호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지금 환호하는 백성이 곧 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이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자 입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것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으며 삭개오와 같이 십자가 앞에 급히 달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기도제목

① 막연하기 만한 상상 속의 예수님이 아닌 살아 계신 실존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② *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

해마다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들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다 새해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고대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캐롤송,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화려한 파티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좇느라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리(Merry)는 ‘기쁜, 즐거운’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Christmas)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즉 메리 크





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눅 2:13).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어떠합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마 1:23).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선물이나 파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그것도 시골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미 5:2).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사공간 안으로 들어오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약 2010년 전 12월, 크리스마스에 일어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눅 19:46) 하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사건에 이어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및 장로들은 유대의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보전, 가르침 및 종교 의식 집행,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 문제의 관할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한 첫 질문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것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언행을 할 무슨 자격이라도 있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 마땅히 그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며칠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의 교만은 결국 자신들의 눈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을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흠으리라 하시니라”(눅 20:18)

기도제목

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 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을 계기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의 징조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8절), 난리와 소란(9~10절), 자연 재해(11절),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12~19절)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에 있을 환난과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20~28절),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29~38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듯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 끝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하고, 매순간이 주의 재림의 때가 될 수 있기에 늘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고난의 쓴 잔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36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찢어 놓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6)

기도제목

① 세상 속에서 지쳐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 찬송가 232장

예수님의 수난이 시작되는 이 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1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하는 심정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느바, 장차 이루어질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가르치시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24절)고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도망,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28절)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고생을 격려하시며, 아울러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앞으로 닥칠 위험들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16, 18절). 그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30절)라는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하늘 나라에서 베풀어질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 22:61~62)

기도제목

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초자연적 모습으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44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45절),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습니다(47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증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42절). 평생에 행한 일은 죄뿐인 죽음을 앞둔 행악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의 세계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행악자는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절)는 예수님의 약속을 선언 받는 은총을 입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일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눅 23:52~53)

기도제목

① 죄와 함께 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 찬송가 170장

예수님의 부활(1~49절) 및 승천(50~53절)으로 누가복음을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각 복음서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최종 메시지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며, 구속 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보혜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및 승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태동 및 성장 과정의 배경이 됩니다.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5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존은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찾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과 ‘무덤’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무덤은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17절)에 대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18절) 하는 글로바의 대답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으며 실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해 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늘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8)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늘 살아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매순간 느끼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 찬송가 446장

10

금요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1절) 창세기 1:1을 연상시키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인 천지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이르러 계시가 완성된다고 볼 때, 말씀은 ‘로고스’로서, ‘로고스’가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1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로써 삼위 일체 교리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절). 이와 같이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14절)는 9절의 성육신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으로 “육신”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14절)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실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 독생하신 하나님 이 나타내셨느니라”(18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50절, 또 “하늘이 열리고”(51절)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야곱이 베엘에서 꿈과 연관되며(창 28:10~2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열려진 하늘’이 상징하듯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창 28:12)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요 1:34)

기도제목

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어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 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 찬송가 459장

가나의 혼례(1~12절)와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13~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장차 천국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후반부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당신의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입증해 보일 최대의 표적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18절)며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들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좇기 보다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요 2:21~22)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보아도 믿지 않는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계속

두드리라!

복음 앞에서는 문화와 계급은 물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거나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며 마음 속에 농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떠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농아인 사역'으로 더없이 기쁘고 설렌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가진 선교의 경험이나 방법들을 모조리 접어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며 선교지에 왔으나 처음부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뜻밖에도 농아인들을 만나는 일부터 어려웠습니다. 수소문 끝에 시장에서 신발이나 옷 장사를 하는 농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를 나누어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뽕비는 시장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농아인들에게 한국어 수화와 현지어 수화로 번갈아 신호를 보냈지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수화를 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반가운 눈빛도 없고 복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공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고 전도지를 전해주었으나 마음 한 켠이 내내 아팠습니다.

또한 어렵게 농아인 집을 찾아갔으나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그 영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을 세 번이나 방문했으나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 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떠나오기 한 시간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가슴 한 켠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연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훈련이 필요함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 깊이 장애인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장애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배찬희(집사, 에바다부)

2009년 12월 13일 주간충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 찬송가 251장

12

주 일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표적(요 2:23)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드러내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가?”와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만남은 죄를 회개함으로 써 얻어 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후에”(22절)라는 구절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며 니고데모의 방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16~21절).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로 적셔지며 사하심을 입은 은총을 체험한 자만이 거듭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으며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어떠한 죄의 모습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꼭 닫힌 마음을 열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달라고 간구합시다. “나 예수님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기도제목

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네 남편을 불러 오라(16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 도전과 무르침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인생의 거친 삶에 지쳤고 목 말랐으며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남들이 다 쉬는 정오에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15절).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생수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갈증 없이 생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며, 또한 물 길러 다니는 수고도 면하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적 요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깨달은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여자의 첫 설교 제목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여자의 말에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39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42절)하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생애 목 마르고 갈증이 났던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 마르지도 않고, 우리의 양식인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는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참 구주로 믿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창세기 24장 · 찬송가 449장

14

화요일

성도의 결혼까지 간섭하셔서 언약의 혈통을 이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심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언약의 혈통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메소보다미아로 보냈습니다(1~9절).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며, 본인과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얻게 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12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를 통하여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기도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종은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이자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로는 신앙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지만 실제로 물질과 배경, 학벌, 외모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결혼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 언약의 순수한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불신앙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특히 예수님을 믿는 젊은 청년들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의 젊은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창 24:12)

기도제목

① 인도하심과 이루심을 신뢰하며 나의 가치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로 마감되고 선민의 역사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후손들에 대해 언급하며(1~6절), 아브라함의 죽음과 막벨라 굴에 장사지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7~11절).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였으며(12~18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19~26절). 끝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야곱에게 판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27~34절). 특히 여기에 언급된 족보는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지와 언약에서 제외된 혈통은 언약의 후손으로부터 분리됨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교체되며, 나아가 야곱에게로 승계되는 새로운 흐름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린 자를 축복하심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혈통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선택이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행해졌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능력과 선행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무한한 은총의 결과입니다(엡 2:8~9).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창 25:23)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공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감관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6장 · 찬송가 374장

16

목요일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계승받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여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6~26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자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만든 모든 우물을 막고 흠으로 메워버립니다(12~15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물을 찾아 떠나가는 이삭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24절)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3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24절)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머무는 땅에 기근이 찾아왔듯이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았듯이(5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실존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창 26:5)

기도제목

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놓인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총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총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사설)이 이웃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모습과(1~29절)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와 에서에 대한 이삭의 예언(30~40절), 그리고 리브가가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41~46절). 죽음에 직면한 이삭은 평소 사랑하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리브가의 계책으로 언약적 축복을 계승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은 후일 야곱의 고달픈 나그네 인생의 여정이 잘 반증해 줍니다. 비록 그는 언약의 후손으로 지명되었으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려 함으로써 그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빼앗고 ... 빼앗았나이다”(36절)는 순전히 에서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자의로 야곱에게 넘겨졌던 것이며(창 25:33),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언약의 계승이 단순히 육적인 조건과 혈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롬 9:11 ; 요 1:13). 구원의 언약은 민음의 혈통을 따라 계승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이 장자인 것만 믿고 안일한 삶을 살았던 에서가 아니라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갈구하는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예는 민음의 기문, 사회적 배경, 전통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안일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이와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창 27:29)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하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며 기뻐 찬양하는 성탄축하 감시음악회가 되게 하소서.

기나긴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야곱은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밧단아람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길이 아닌 먼 길을 가면서 사막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것이며, 언제 어떤 동물이 나타나 해칠지 모르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형 에서를 피해 망망히 유랑의 길을 나서며 지치고 외로운 심정으로 홀로 잠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신 것입니다.

“꿈에 본즉 … 또 본즉”(12절, “또 본즉”(13절). 야곱이 꿈 속에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놀라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였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되어 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사닥다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진정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요 10:9).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사닥다리의 본체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요 1:51). 야곱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본즉”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감탄하였듯 우리도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창 28:12)

기도제목

① 사닥다리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날을 허락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크리스마스 카드는 전도 카드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주고 받는다.
대부분의 카드에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에는 E-mail을 활용하는 카드도 꽤 인기라고 한다.
혹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을 빠트리지 말자.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진정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이제 베들레헴으로...빨리 가서...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했음을 전하니" (눅 2:15~17)

두 아내로 인한 시련

창세기 29장 · 찬송가 379장

19

주 일

벤엘 광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를 인도하여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외삼촌 라반을 만났으며(1~14절),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14년 동안 일한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5~30절). 또한 두 아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열두 아들까지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31~35절).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야곱을 통하여 믿음과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줍니다. 남을 속이는 데 뛰어난 야곱도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죄악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한 야곱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잘 보여 줍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런 시련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었던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시련을 통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창 29:20)

기도제목

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창세기 30장 · 찬송가 452장

벤엘에서 하신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과정으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여 여종을 야곱에게 주기까지 하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는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일어나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시어 언약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1~24절). 야곱과 라반이 노동에 대한 대가의 계약을 맺고 난 후 야곱은 교활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불러 갑니다(25~43절). 이것은 벤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개입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와 극렬한 투기 속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17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22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23절)는 고백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레아나 라헬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라헬에게 자식 없음의 서러움을 체험케 함으로써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섭리와 뜻에 달려있으므로 믿음과 인내로써 겸손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창 30:22)

기도제목

① 모든 것이 주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 함께 있으리라”(3절)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할 때처럼 이제는 귀향길을 돌봐주시겠다는 20년 전의 벰엘 언약(창 28:15)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불러내십니다(요 10:28~29). 이것은 이 땅의 성도들도 때가 차면 언젠가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고후 5:1).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창 28:21)하는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던 야곱이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5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42절)라는 고백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힘을 다하여”(6절)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으며, 오늘 또한 그분의 돌보심 때문임을 강조합니다(42절).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붙잡고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창 31:3)

기도제목

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와의 화해라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벵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마하나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1~2절). 벵엘에서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거룩한 약속을 따라 귀향길을 서두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창 31:13). 그러므로 야곱은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진정한 화해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모든 인간적인 처세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인간적인 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야곱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를 받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 밖에 없음을 보여 줍니다. 압록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은 주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놀라운 사건은 교만과 사기, 속임수로 점철된 그의 생애가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바뀐 것을 뜻합니다. 형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던(11절) 야곱이 변하여 이제 야곱의 몸에도 은혜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교만과 속임수로 일관하던 야곱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도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창 32:31)

기도제목

①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창세기 33장 · 찬송가 108장

23

목요일

지난 밤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으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창 32:30).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야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잔피를 부리던 모습과는 달리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는 야곱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3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4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벰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겜 성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입니다(창 12:6~9). 야곱은 세겜에 도착한 후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함을 확신한 야곱은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하는 에서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라고 겸손히 답합니다(5절).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창 33:4)

기도제목

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게 화를 끼쳐

창세기 34장 · 찬송가 111장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추장의 아들 세겔에게 강간당하는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었던 약속에 따라 야곱이 이르러야 했던 곳은 세겔이 아니라 벰엘이었습니다(창 31:3,13). 그러나 야곱은 6~9년 동안 세겔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고 ‘다’ 순종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거나 불순종에 대하여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여야 합니다(요 2:5).

디나의 사건으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지나친 증오심으로 인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세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과 통혼하겠다는 거짓 제안을 하였습니다(13~17절). 개인적인 야심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신앙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교묘한 속임수와 허물과 세겔의 욕심, 그리고 세겔 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극악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딤후 3:13). 남을 속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계략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여 더욱 큰 속임수에 빠져들도록 합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의 혈기에 의한 복수심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삶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하심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 34:30)

기도제목

① 주의 말씀에 ‘곧’, 그리고 ‘다’ 순종하게 하소서. ② 베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 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야곱은 다나의 강간 사건을 겪으면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가도록 하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협력하여 신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벧엘에서 체결했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지 않고 다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벧엘로 올라간다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밧단아람에서 출발할 때부터 드라빔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가지고 떠났습니다(창 31:19). 그들은 영적 순결성을 잃었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왜곡되었으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겔 사건을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야곱의 집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벧엘로 올라갑니다(2절).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시 130:5).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창 35:2)

기도제목

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깨닫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성탄절 날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 교회 학생들이 했던 연극에서 처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겐 아주 먼 나라 이야기였고,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로 대변되는 선물과 트리장식으로 기억되는 명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삼십 대의 젊은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발렌타인 데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 친구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이전에 여자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사귀어 여자 친구와 재미있게 놀 궁리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던 이삼십 대의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잊혀진 명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자체가 제 삶 속에서 잊혀져 갈 무렵, 외삼촌으로부터 교회에 나와 보라는 제의와 거절하기 힘든 무언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마 3년 전 이맘 때였습니다. 당시 남양주에 살던 저에게 충현교회는 너무 먼 곳이었고, 교회의 외형만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나 다니는 교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신 중이던 아내가 태교를 운운하며 먼저 교회에 나가자고 하였고, 우리 내외에게 성경까지 선물하시며 적극적으로 전도하신 외삼촌 때문에 2006년 성탄절예배를 시작으로 처음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찬양예배 때 위임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찌 들으면 당연한 말씀 같지만 무려 40년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온 저에게 그 말씀이 정말 기적처럼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 생각하니 ‘예수님의 탄생이 어찌 기적이 아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주여, 저에게 크리스마스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이제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순간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종용(집사, 10교구)

2008년 12월 21일 주간총회

에돔의 족보

창세기 36장 · 찬송가 117장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문명과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찍 국가형태의 사회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부요함과 발달한 형태의 문명보다도 영적 부요함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제 3:17).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돌아온 후에 에서는 가나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세일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6절).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한정된 땅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나, 근원적인 이유는 창세기 27:27~40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룩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창 36:1)

기도제목

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제6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혈육의 정을 깨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 벗어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기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의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창 4:5~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마 5:44).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은 급기야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장차 이스라엘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서 번성하도록 하였으며(창 45:5), 아브라함과 의 인약대로 400년간 애굽에서 머물도록 하려는 계획을 실현해 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창 15:13~14).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서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아울러 요셉이 온 이십 개에 팔린 것과 그가 고난 받은 모습은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열한 명의 아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34~35절)을 보면서 단 하나 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잃어버림과 내어줌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역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창 37:26~27)

기도제목

①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방황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케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계보의 조상인 유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인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마 1:1~3).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효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효이 풍성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악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발하시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지만 여호와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세상문화를 극복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타락과 부패로 가득찬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비밀인 예수님의 계보가 나타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끄럼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남김없이 말씀합니다. 부끄럼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빚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기적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창 38:15)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닌 주로부터 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 찬송가 400장

29

수요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정직한 길'(잠 4:11)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으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 그를 연단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창 50:20).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2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3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5절)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며 그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요셉이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집요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마 6:13)라고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히 4:15).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

기도제목

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 찬송가 413장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게 하신(23절) 분도 하나님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썩은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던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이들은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었으며, 그들이 꾸은 꿈의 내용을 듣고 이들이 꾸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14절).

요셉의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약 2년 정도를 더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감옥을 나가고 싶은 요셉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은 아닙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때 우리의 삶도 기억하시며 돌이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창 40:23)

기도제목

① 당장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선한 목자되신 주 안에서 항상 평안케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요셉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시들도 풀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 땅에 임할 극심한 흉년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함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극적 상황 진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입증해 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머나 먼 이국에서 살아야만 했으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도록 섭리하신 뜻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창 41:57)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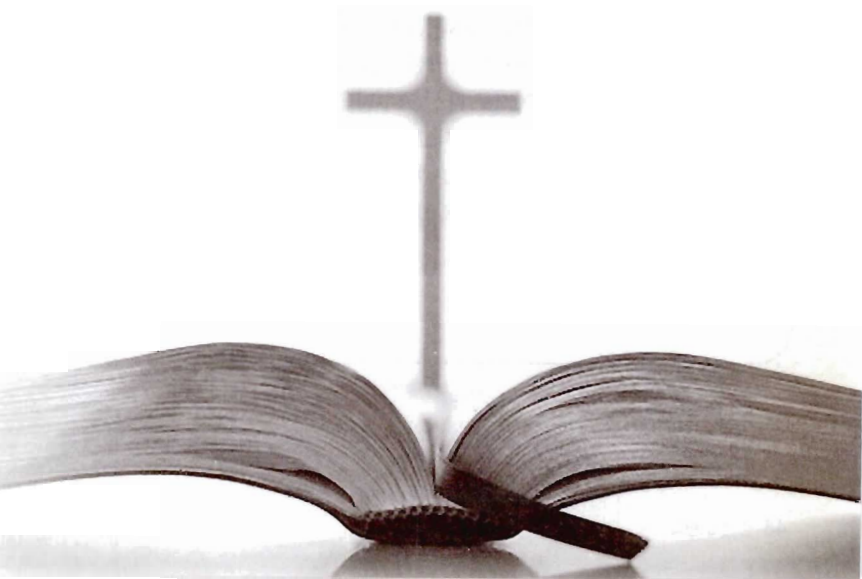
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역예배

12월 구역교재 초점

크리스마스의
증인들



크리스마스의 증인들

오늘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두고 행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일 뿐,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교회들은 증인의 사명보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그 본질을 흐린 채 하나의 축제로 즐길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교회, 모든 성도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악한 종교적인 행위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뒤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증인들입니다. 

12월 3일

누가복음 14:16~24

항상 감사하라

십자가는 참된 감사의 시작이다

12월 10일

사도행전 1:4~11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12월 17일

요한복음 2:12~22

인간적인 종교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12월 24일

고린도전서 15:51~52

휴거, 부활의 신비

십자가를 붙들며 휴거를 준비하자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옵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12월 3일

1 과

항상 감사하라

| 초점 |

십자가는 참된 감사의 시작이다

| 찬송 |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 본문 | 누가복음 14:16~24

¹⁶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¹⁷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 ²³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²⁴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던져놓은 영적 오해들의 더러운 진흙에 빠져 있습니다.

※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펴내기 위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발언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큰 잔치를 열어 강권하여 초대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를 정리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 이요”(마 5:4)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둠과 불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 15:11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의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결과입니다(창 3:16). 따라서 인간들은 즐거워 하기 전에 먼저 슬퍼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비탄과 슬픔에서 벗어날 때 복이 있습니다.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기에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눅 6:22~23

바리새인의 오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장래가 아닌 지금 복됩니다.

요 16:33 _____

지금은 신자들이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즉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떡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참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으며, 이 기쁨은 천국까지 미칠 것입니다.

골 1:20 _____

골 1:26~27 _____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마 5:3~10). 천국의 특성에 대해 예수님은 장래가 아닌 지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6:20). 오늘 본문의 예수님 비유는 축복의 잔치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 된 삶으로 인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눅 14:24).

이미 준비되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지금 축복과 감사도 있습니다.

눅 17:20~21

예수님의 비유가 전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과 함께할 장래의 잔치를 고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의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 속에서 그 주인이 이미 잔치준비를 끝냈다는 과거시제를 썼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엡 2:1,5~6).

※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삶에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살며 그의 심령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5:50).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눅 17:20~21).

요 6:29,35,38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잔치로 나아오는 것 뿐입니다. 바로 지금 나아와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유한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엡 3:12

히 10:22

물질적인 소유가 축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축복은 우리의 삶에 매순간 감사와 기쁨 그리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바꾸실 것이며, 새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된 감사의 시작입니다.

| 믿음의 기도 |

1.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0년 12월 10일

2과

내 증인이 되리라

| 초점 |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자

| 찬송 |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본문 | 사도행전 1:4~11

⁽⁴⁾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¹⁰⁾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¹¹⁾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두고 행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일 뿐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교회들은 증인의 사명보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증인의 사명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대부분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딤후 3:15 _____

현대 교회의 상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지금이 무슨 시간인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입니다.

행 1:6~7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실 때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두려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막 떠나려고 하셨을 그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마 24:36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특정한 날에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무지한 사람들은 직업을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매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성령님은 증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행 1:8 _____

행 2:2~4 _____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음에도 증인이 되었습니다(행 2:41). 더욱 놀라운 소식은 바로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모든 성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서 증인이 됩니다.

고전 6:19 _____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제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누가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행 1:8).

막 16:15 /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에게 복음을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승천하셨고 이제 곧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행 1:9~11 /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_____
_____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는 하늘로 가심을 본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상 주실 주님이십니다.

사 62:11 _____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증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증인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 10:39 _____

눅 13:24 _____

무엇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 믿음의 기도 |

1. 마지막 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0년 12월 17일

3과

인간적인 종교

| 초점 |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자

| 찬송 |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 본문 | 요한복음 2:12~22

¹²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¹³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 ²¹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²²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날 교회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의 예배, 프로그램, 찬교, 찬양에 일고 있는 이 변화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원칙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잘 정착시키는 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며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인간 중심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특징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 16:18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거나 즐거움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불경건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도처에서 살며시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반드시 매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요 2:12~13

눅 2:41

※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정리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는 각 가족 단위를 위해서 특별한 어린 양의 도살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대체될 이 유대의 전통을 거부하지 않고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할 하나님의 특별한 양이 되셨습니다.

요 1:29

요 2:19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요 2:14~16 /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_____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
시되 _____ 하시니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
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2:21 _____

엡 1:23 _____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한 동물
제물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동물들을 가져오지 못했
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팔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환전상들도 있어 모든 종류의 외국돈을 바꾸
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쉽게 지킬 수 있도
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시장
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예식들을 우리는 사업적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편한 방법이 종교를 인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 2000년 전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한 일을 현대 교회에서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 중심의 예식이 아닌, 인간 중심의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편리함을 위해 행했던 이러한 신성모독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집에서 장사하는 행위들을 완전히 흠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엡 5:27

딤후 3:15

※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요 2:17)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교회 성장을 위한 갖가지 방법들로 가득합니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허용했던 일들 때문에 주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당장 그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 2:18~19

골 1:24

2010년이 거의 끝나고 이제 2011년의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요 4:23~24). 인간적인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인간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힘쓰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복음이 사라진 현대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2.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10년 12월 24일

휴거, 부활의 신비

| 초점 |

십자가를 붙들며 휴거를 준비하자

| 찬송 |

찬송가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 본문 | 고린도전서 15:51~52

⁵¹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⁵²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성경본문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휴거는 구약성경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지만,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고전 15:51~52 _____

고전 15:3~4 _____

요 14:1~3 _____

우리는 밝히 드러나는 휴거의 놀라운 계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휴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부활

휴거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고전 15:22~23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살아 있는 성도들과 이미 죽은 성도들은 차례대로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살전 4:16~18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_____로 친히 하늘로부터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 ☐☐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_____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가 일어날 때 죽은 모든 성도가 첫 번째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살아 있는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세상의 끝은 성도들을 위한 엄청난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휴거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일 3:1~2

휴거 시에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몸, 완전한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맛보지 않으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것으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계 21:4

롬 8:22~23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점은 부활의 상태입니다. 휴거 때 모든 성도는 완전해질 것이며 영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의 상

휴거는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계 22:12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 주리라

구원은 일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라 상입니다. 각 성도가 받은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또 다른 상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약 1:12 /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_____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딤후 4:8 /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_____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_____ 모든 자에게도니라

휴거 때에, 그리스도는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변함 없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한 성도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벰전 4:13 _____

벰전 5:4 _____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의 결과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요 5:29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11:25 _____

휴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며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십자가를 붙들며 휴거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2. 2010년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2011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3. 우리 구역이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종교

⁽¹²⁾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¹³⁾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

⁽²¹⁾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²²⁾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12-22)

오늘날 교회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의 예배, 프로그램, 찬교, 찬양에 일고 있는 이 변화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원칙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잘 정착시키는 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으며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거나 즐거움을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불경건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도처에서 살며시 다가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반드시 매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초점을 잃어버리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요 2:12~13).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에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가셨습니다(눅 2:41). 이번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친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땅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지나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했음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각 가족 단위를 위해서 특별한 어린 양의 도살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대체될 이 유대의 전통을 거부하지 않고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할 하나님의 특별한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관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요 2:14~16).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21).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전에 하나님의 제사법은 특별한 동물제물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동물들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팔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환전상들도 있어 모든 종류의 외국돈을 바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월절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시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예식들을 우리는 사업적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편한 방법이 종교를 인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 중심의 예식이 아닌, 인간 중심의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편리함을 위해 행했던 이러한 신성모독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집에서 장사하는 행위들을 완전히 흠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이 거의 끝나고 이제 2011년의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인간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힘쓰는 충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여기로 오신다면 그는 여러분 때문에 슬퍼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축복하실까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 믿음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卍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신

⁽¹⁴⁾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¹⁵⁾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¹⁶⁾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¹⁷⁾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¹⁸⁾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14~18)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 즉 삼위 하나님의 2위이신 영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 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진실로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성육신에 나타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딤후 2:11).

영원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쉽게 말해서 무한한 것을 볼 수 없는 유한한 몸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요 14:6).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요 3:16).

성육신은 하나님의 현현

성육신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 나무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보았던 하늘의 빛 또는 예수님의 세례 후에 들렸던 음성처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전하기 위해 단순히 보여 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는 살아 계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을 통하여 스스로 죄 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야 했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이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값을 치르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죄의 노예인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즐기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보이는 형태의 인간이 되어 하늘로부터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이것은 오래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6~7).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모든 방법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성경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6~17).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성육신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12월

Copyright©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